



여성위원회와 시네마떼끄가 함께 하는

# 여성영화제

3월 25일-27일, 늦은 2시

첫째날, 〈거북이 시스터즈〉 - 이 영

둘째날, 〈가 출소녀들〉 - 킴 론지노토 & 지바 미르-호세이니

셋째날, 〈제비꽃 향기 : 아무도 믿지 않는다.〉

- 마리사 시스타츠

☆ 매 상영 후 작은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25 첫째날 '오아시스에 빠져죽다.'

〈거북이 시스템즈〉 한국 / 이영 / 1998 / 47분 \*\*\* 상영 후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영화는 중증 장애여성 '영희', '영란', '순천'의 독립 후 5년이 흐른 어느 날에 시작한다. 스토리의 큰 축은 이사이다. 동선은 작게, 높이는 낮게,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지만, 포장이사 회사는 이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고 가버린다. 감독은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조용히 그들의 일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앵글을 통해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주체임을 말한다.

3/26 둘째날 '어제밤에 우리 아빠가'

〈가출 소녀들 Runaway〉 영국 / 킴 론지노토 & 지바 미르-호세이니 / 2001 / 87분

영화의 공간은, 가족의 학대 속에서 집을 뛰쳐나온 소녀들이 머무르는 테헤란의 청소년여성 쉼터이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이란의 거대한 변화를 접한다. 이제 매질이나 성폭력, 협박 따위로 여성들을 가부장제의 속박에 묶어둘 수 없다. 여성 쉼터는 이 소녀들이 복잡한 가정 문제의 한 복판에 서서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화는 따뜻한 시선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용기와 자존, 사랑을 그리고 있다.

3/27 셋째날 '자유롭게 말해보요.'

〈제비꽃 향기 : 아무도 믿지 않는다. Violet Perfume : Nobody Hears You.〉 멕시코 / 마리사 시스타츠 / 2001 / 90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나 약자다. 특히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록 여성은 더욱 그 힘을 잃는다. 이 영화의 제시카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의 위협 속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특히 그녀에게 가해진 '강간'이라는 폭력은 그녀에게 극복할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오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그녀는 무너져간다. 이 영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폭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